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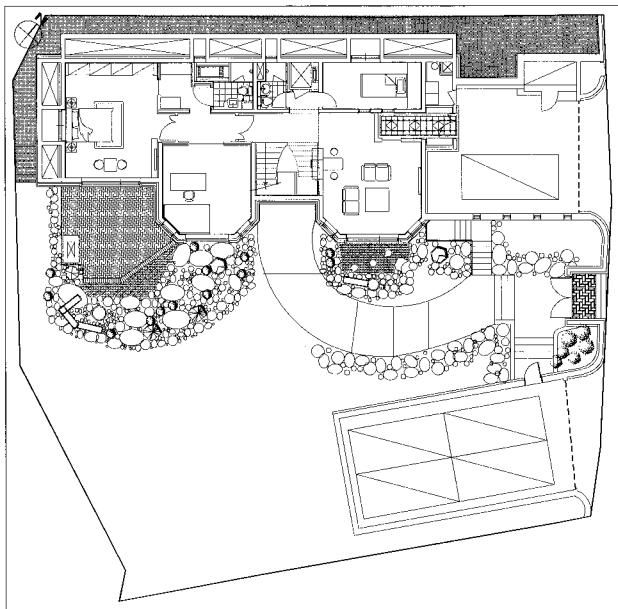
이동현 / 정회원, 아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Dong-hyun, KIRA

약력  
•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 부천대학 겸임교수

## 소통(疏通) Communication

● 배치도

● 건축개요



0 2 5m

-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4-11
- 지역/지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 주요용도 단독주택
- 대지면적 814.00㎡
- 건축면적 161.55㎡
- 연면적 595.62㎡
- 건폐율 19.85% (법정 20%이하)
- 용적률 38.87% (법정 70%이하)
-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바닥 : 온돌 대리석 마감, 벽 : 고급벽지,  
천장 : 천연목재루버, 고급천장지
- 외부마감 현무암+대리석, THK24칼라복층유리, 지붕기와와잇기
- 구조설계 박채삼(주,도화구조)
- 설비설계 윤중훈(주,우일설비)
- 전기설계 박용현(주식회사 엘림전설)
- 시공사 이건호 소장(소망종합건설)
- 설계담당 노학진, 정지혜, 정민경, 홍창우



Location 74-11, Geumgok-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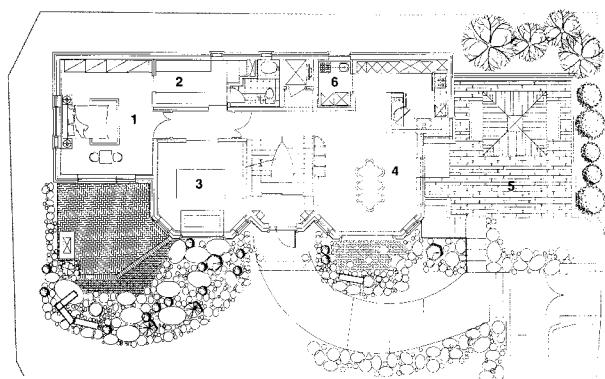
- Site area 814.00㎡
- Bldg area 161.55㎡
- Gross floor area 595.62㎡
- Bldg coverage ratio 19.85% (법정 20%이하)
- Gross floor ratio 38.87% (법정 70%이하)
- Structure R,C
- Bldg. Scale B1,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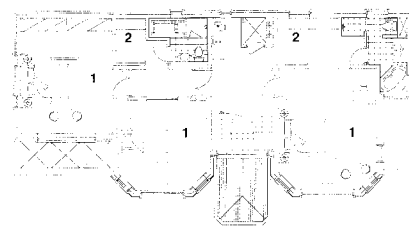
1. 전경  
2. 출입구에서 바라본 건물 3. 침실에서 내려다 본 선문



- 01. 침실
- 02. 드레스룸
- 03. 다락실
- 04. 주방/식당
- 05. 테라스
- 06. 다용도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소통(疏通)

주택이 위치한 금곡동은 도시에서 빠져나와 평온과 여유로움을 갖기 위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한 동네이다. 이 동네에서는 산의 풀내음과 새의 지저귀미 흘러 500m 앞 도로와 저 멀리에 있는 큰 도시의 치열함과 무관한 듯 하다.

### '3, 3, 3'

이 주택을 설계하는데 총 개념은 3,3,3에 있다.

건축주는 이번이 3번째 짓는 집이라는 점, 3개 층의 설계를 요구하였다는 점, 3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이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3번째 짓는 집인 만큼 재료선정, 자재선정이 전의 주택보다 나은 집을 짓기 위해 꼼꼼히 진행되었으며, 지하 1층은 가장인 건축주의 공간, 지상 1층은 가족의 공간, 지상 2층은 자녀와 손주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건축주가 사용하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장애인용 홈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경사로와 단차이를 최소화 시켜 건축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 '겨울의 평온함'

해가 내리쬐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가을지나 겨울... 건축사는 이 건물에 평온을 담고 싶었다.

이제 곧 손주가 집으로 온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떠날 때 근엄해 야만했던 건축주가 바라는 것은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겨울, 직접 난로에서 구운 밤과 고구마를 어여쁜 손주에게 먹여주며, 그 손주의 재롱을 지켜보는 것일 것이다. 그의 젊은 시절 그가 치러냈던 치열함만큼 그가 바랐던 이 평온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리라.

### '자연과의 소통'

이 주택은 자연과 함께 호흡한다.

자연 그대로의 산세를 받아드리고, 자연의 지세를 받아드린다. 산세는 그대로 정원으로 흘러내린다.

선근의 계획은 지하층 집안에서도 창밖에 하늘과 자연을 느끼게 하고, 햇빛이 깊숙히 방안으로 들어와 지상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지상 1, 2층의 남쪽으로 경쾌하게 뚫린 창문으로는 언덕 밑의 풍경과 하늘이 벽처럼 들어와 마치 하늘위에 집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젊은 시절 한번쯤은 상상해보았을 만한 노년의 시간, 누구나 그 시간은 파스한 미소이기를 원할 것이다.

자연, 가족, 정... 이 것들이 이 집안에서 건축주에게 은은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